

2026  
HAPPY NEW YEAR

# 설 명절 가 정 예 배

성문교회



## 예배 순서

목 상 ..... 인도자  
신앙고백 ..... 다함께  
찬 송 ..... 28장 / 다함께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후렴)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2.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후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주를 떠나기 쉬우니  
(후렴) 우리 맘은 연약하며 범죠타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기 도 ..... 가족대표  
성 경 ..... 시편 127:1-2/ 인도자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 씬 ..... 우리 가족을 세우시는 하나님/ 인도자  
찬 송 ..... 559장 / 다함께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위 터 잡고서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모시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폐 회 ..... 주기도문 / 다함께

##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 (시편 127:1-2)

설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은 참으로 감사한 은혜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오던 가족들이 오늘 이렇게 마주 앉아 웃음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앞으로의 시간 역시 그분께 맡겨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씀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을 가볍게 여기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애쓰며 가정을 일구어 온 그 모든 순간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고 계셨음을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붙들어 오셨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보호와 인도하심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가정과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떠나 살아갈 때, 가정은 참된 쉼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운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가족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으려 노력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걱정하고, 가정의 경제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처럼 밤잠을 설치며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빈틈없이 지키려 해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가정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것은 우리 가정에 아무런 문제나 갈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정 안에는 늘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가정은 고난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참된 복은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은 완벽하지 않아도 따뜻하며, 부족해 보여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가정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소망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삶 위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